

17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욥기 1장 1-12절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옘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옘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옘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탈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